

스페인어 생략 구문에서의 담화 응집성 효과 분석*

— Vallduví의 정보부 이론을 중심으로 —

양 승 관
단독/선문대학교

Yang, Seung-Kwan(2006), Estudio de los efectos de la cohesión en las construcciones elípticas del español -en relación con la teoría del componente informativo-, *Revista Iberoamericana*, 17, pp. 47-72.

El tema de la elisión se ha tratado repetidamente en la lingüística. Pero casi no existe un intento de sistematización de los factores que llevan a la elisión de algún constituyente del discurso ni de los contextos en que aparece la elisión. Además, los mecanismos de la cohesión discursiva en las construcciones elípticas no han recibido atención casi nunca en español, por lo que aún no se ha podido ofrecer un análisis adecuado de los efectos de la cohesión de la elisión. La elisión se considera uno de los recursos de cohesión más frecuentes en la interacción comunicativa, así como la reiteración. De ahí que en este trabajo se reanalice el fenómeno de la elisión (y la reiteración) en español teniendo en cuenta las nociones básicas de la teoría del componente informativo de Vallduví(1990). Propondremos que la elisión y la reiteración de elementos discursivos no son opcionales ni deben ser tratadas como variantes estilísticas. Nuestro objetivo, por tanto, es el de aclarar qué es lo que hace posible, en el uso del contexto por parte del hablante oyente, que oraciones elípticas y no-elípticas puedan ser interpretadas correctamente.

Key Words: estructura de la información/ cohesión discursiva/ elisión y reiteración, 정보 구조/ 담화 응집성/ 생략과 반복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A00030)

I. 서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경제성과 최적성 원리를 준수한다. 경제성 원리에 의거하여 언어는 잉여적인, 즉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적성 원리에 의거하여 언어는 정보 전달에 있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요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메시지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¹⁾

언어 사용의 경제성과 최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가 바로 생략이다. 생략이란 문장이나 담화의 이해를 위해 잉여적인 구성소를 제거하여 외형적 언어 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발화간의 응집성을 높이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반복’ 현상이다. 반복이란 형태적으로 동일한 상대방 발화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략과 반복 현상은 문맥 의존적, 즉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언어 사용의 기본 기능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화자는 청자에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다시 반복하여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이나 발화에 나타나야 할 정보와 나타나서는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즉, 어떤 요소가 무슨 이유로 생략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요소는 무슨 이유로 생략되지 않고 반복하여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생략이 일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Vallduví(1990)와 Vallduví & Engdahl(1996)이 제안한 정보부 이론의 기본 개념들을 채택할 것이다. 기존에는 생략이나 반복 현상을 문체적 변형으로 다루어 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1) cf. Jiménez Juliá(2005, 46).

본 연구에서는 정보 구조에 근거하여 생략과 반복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두 현상이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능에 의해 철저히 제약된 과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생략과 반복 구문에 나타나는 담화적 응집성 효과를 포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생략과 반복 구문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및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보겠다. 제 3장에서는 스페인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질문-대답으로 구성된 구문에서 생략과 반복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보겠다. 제 4장에서는 생략과 반복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Vallduvi(1990)와 Vallduvi & Engdahl(1996)의 정보부 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 보겠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정보구조 단위를 재구성해 보고, 어떤 정보의 생략 여부 및 이유를 밝힘으로서 생략과 반복 구문에 대한 담화 응집성 효과를 포착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간략한 결론을 제시하겠다.

II. 기존 연구의 동향

생략 현상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어권의 저자들에 의해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쏠려진 것이었다. 다른 언어권의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각 언어마다 생략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정의와 기술에 의존하여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하였다. 생략이라는 언어 현상이 각 개별 언어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언어들 간의 보편성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략 구문에서의 담화 응집성 효과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으며, 특히 스페인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생략은 통사론의 연구 대상인 문장 단위뿐만 아니라 문장보다 큰 담화 단위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가 통사적 또는 의미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연구되어 왔으며, 대부분이 이론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어떤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된 문장만을 분석 단위로 취하고 있어 생략 현상의 한 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언어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을 배제하고 문맥이 없는 고립된 문장의 구조에 편중된 연구 및 논의는 언어 지식의 범주를 너무 제한시킴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화자와 청자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담화 기능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²⁾

일반적으로 생략과 반복 현상에 대해, 앞의 문맥에 나왔던 정보는 생략할 수도 있고 반복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사론이나 의미론적 관점에서 두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반복 표현은 언어학 분야에서 잉여적인 구정보라는 인식 때문인지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따라서 막연하게 규칙성을 찾기 힘든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 연구에서 생략과 반복 현상을 다분히 문체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언어 기술이 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구어에서 두드러진 생략과 반복 표현은 더욱 주목받지 못했다.³⁾ 그러나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 생략이나 반복 표현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화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과 반복 현상이 의사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문장은 의미적으로 ‘동사와 관련 논항’, 통사적으로 ‘주어와 술어’ 그리고 담화적으로 ‘화제와 초점’으로 부호화된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항상 이와 같은 전형적인 구조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2) 프라그 학파의 기능적 문장 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이 출범한 이래 메시지의 조직은 통사적 요인들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능적 차원에서 화자들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3) 언어 사용과 교수 측면에서도 반복 표현은 담화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어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 어떤 요소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문장은 불완전한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 (1) A: ¿Quién abrió la ventana?
 B: a. Mi hermana.
 b. La abrió mi hermana.
 c. #Mi hermana abrió la ventana.

(1A)의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대답은 (1Bc)가 아니라 (1Ba)와 (1Bb)이다. 그렇다고 (1Bc)가 통사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다. 다만 (1)과 같은 대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이다. 화자는 어떻게 (1Ba)와 같은 불완전한 구조로 이해 가능한 발화를 산출하는 것이며, 청자는 또 어떻게 그 불완전한 구조를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가? 대화하는 동안 화자와 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정보의 흐름이나 대화의 진행 흐름 등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발화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빼버림으로써 문장의 잉여성을 낮추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렇다고 반복 사용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다시 집어넣음으로써 문장의 잉여성을 높이고 담화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다.⁴⁾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4) 다음의 한국어 예문을 보자:

- (i) 아버지: 학교에 갔다 왔나?
 아들 : 예, 학교에 갔다 왔어요.

(i)에서 아들은 '예'라고만 대답해도 충분한데 '학교에 갔다 왔어요'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것은 부주의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반복 표현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정보 내용을 확실히 강조하며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에서 짧은 대답말('예')로는 부족한 정중한 태도를 보이게 위해 반복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A: ¿A dónde fueron Juan y María?

B: a. Juan fue al parque y María, al zoo.

b. *(Juan) fue al parque y *(María), al zoo.

일반적으로 앞에 언급된 정보를 생략하지 않고 다시 반복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2)의 대화에서와 같이 반복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보도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 연구가 부족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생략문에서의 구정보와 신정보

스페인어에서는 한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가 어순과 같은 통사적 수단, 강세나 억양 같은 운율적인 수단 그리고 형태소에 의한 형태론적인 수단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구정보와 신정보 요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 이들이 생략 구문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화자와 청자간에 알고 있는 구정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초점)는 문장 끝에 또는 최소한 동사 뒤에 위치한다.⁵⁾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3) a. María compró las flores.

b. Las flores las compró María.

(3a)에서 구정보는 주어 María이고 신정보는 compró las flores이다. 마찬가지로 (3b)에서는 구정보가 직접 목적어 las flores이고 신정보가 las compró María이다. 두 문장은 통사·의미적으로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구성소들의 상이한 위치가 문법적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장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

5) 구정보-신정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깊이 있게 비교 논의한 논문으로 Prince (1979, 1981)를 참조하시오.

럴까? 그 이유는 주어와 목적어의 상이한 위치가 각각에 의해 도입된 정보를 조건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3a)에서는 Maria에 대해 말하며, 그녀에 대한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3b)에서는 las flores에 대해 말하며, 그 꽃에 대한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3)에 있는 두 문장의 사용이 우연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소통에서 화자들은 상이한 통신 의도를 가지는데 그에 따라 문장을 구조화하여 상이한 어순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구정보-신정보의 개념은 그 동안 문체적인 변이형으로 취급되어온 상이한 어순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 (4) a. Gritó Carlos.
b. Carlos gritó.

(4)에서도 두 문장은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정상적인 억양을 가진 경우 두 문장은 구정보-신정보의 어순을 취한다. 즉 (4a)에서 gritó는 구정보이고 Carlos는 신정보이다. (4b)에서는 Carlos가 구정보이고 gritó가 신정보가 된다. (4)를 대답하게 하는 다음의 질문을 보면 그 의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 (5) a. ¿Quién gritó?
b. ¿Qué pasó con Carlos?

(4a)만이 질문 (5a)의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반면에 (4b)만이 질문 (5b)의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다. (5a)의 질문은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전제 하에 ‘소리 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대답에서는 (4a)처럼 구정보 gritó와 신정보 Carlos로 구성된 어순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Carlos가 문두에 오게 되면 화자들은 그 요소를 구정보로 해석하게 되고 (5a) 질문과는 담화적 긴밀성이 떨어져 발화의 연결이 매우 어색해지게 된다. 다른 한편, (5b)의 질문은 ‘Carlos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대답에서는 (4b)와 같이 구정보 Carlos와 신정보 gritó로 구성된 어

순을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4)의 두 문장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구정보와 신정보가 어순 이외에 강세나 억양에 의해 조건화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대문자는 ‘운율적 도드라짐’을 표시한 것이다):

- (6) a. MARÍA compró las flores.
- b. LAS FLORES compró María.

(6)은 (3)과 동일한 어순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 내용이 다르다. 대문자로 표시된 구성소는 강조된 요소이며 새로운 정보를 도입한다. (6)은 (3)과 달리 다음과 같은 분열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 (7) a. Fue María (y no otra) quien compró las flores.
- b. Fue las flores (y no otras) las que compró María.

(7a)에서 María는 단순히 ‘María가 꽃을 샀다’는 사건을 구성하는 일부 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산 사람’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7b)에서도 마찬가지로 ‘산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구정보와 신정보는 한정사의 사용을 통해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관사나 지시사는 알고 있는 정보에 사용되고 무관사와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것으로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정보에 사용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스페인어에서 정상적인 무표적인(unmarked) 어순의 경우에 구정보-신정보의 어순을 취한다. 이와 같이 정보 가치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열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부정관사 또는 무관사 주어들이 동사보다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⁶⁾

6) 정관사나 지시사 등으로 표현된 한정 명사는 부정관사를 수반하는 비한정 명사보다 지시체의 정체 확인 가능성 정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은 화자의 문장 구성소의 배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화자는 전달할 내용에 대한 청자의 용이한 이해를 위해 정체 확인 가능성이 높은 요소(구정보)를 낮은 요소(신정보)보다 문장의 앞쪽에 놓는다.

(8) a. ?*Científicos rusos* participarán en este congreso.

b. Participarán en este congreso *científicos rusos*.

(Hernanz y Brucart, 1987, 81)

(8b)에서처럼 무관사 주어들이 동사 뒤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새로운 정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정보인 무관사 주어가 문두에 나타나면 (8a)에서처럼 어색해진다. (8a)는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전체 문장이 새로운 정보로서 해석되어질 때만 자연스럽다.

다음 예문 (9)는 문두 요소들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유표적인(marked) 어순인데, 이 경우에는 신정보-구정보의 어순을 취한다:

(9) a. *HAN PARTICIPADO científicos rusos (en este congreso).

b. HAN PARTICIPADO los científicos rusos (en este congreso).

(Hernanz y Brucart, 1987, 81)

c. *FRACASÓ un experimento.

(Contreras, 1978, 18)

(9b)가 정문이 되는 이유는 정관사를 가진 주어가 구정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며, (9a)와 (9c)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무관사나 부정관사 주어가 불특정한 특성으로 인해 구정보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부정관사 또는 무관사 명사구와 정관사 명사구에 쓰인 한정사들이 문장의 구성소들을 구정보-신정보 요소로 구분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페인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 요소는 어순, 운을 및 한정사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구정보와 신정보들이 생략된 구조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표시는 담화적으로 볼 때 부적절함을 표시한 것이다):

(10) A: ¿En Madrid vivías en una casa?

B: a. #Sí. en Madrid. / #Sí. allí.

b. Sí, (vivía) en una casa.

(11) A: ¿Compraste esta pluma en Madrid?

B: a. Sí, en Madrid. / Sí, allí.

b. #Sí, (compré) esta pluma.

(10A)에 대한 대답으로 (10Ba)의 ‘Sí, en Madrid’ (또는 상응하는 대체 표현을 사용한 ‘Sí, allí’)는 매우 어색하고, (11A)에 대한 대답으로 (11Ba)의 ‘Sí, en Madrid’ (또는 ‘Sí, allí’)는 자연스럽다. 또한 (10A)에 대한 대답으로 (10Bb)의 ‘Sí, (vivía) en una casa’가 자연스럽고, (11A)의 대답으로 (11Bb)의 ‘#Sí, (compré) esta pluma’는 어색하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장 구성소에 대한 구정보와 신정보의 구분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10A)의 질문은 ‘마드리드에서 네가 살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집에서였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대답에서 ‘en Madrid’는 담화상에 이미 도입된 구정보로 기능하며 생략되어야 하는 반면, ‘en una casa’는 대답에서 새로운 정보로 기능하여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11A)는 ‘이 펜을 네가 샀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드리드에서였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 따라서 (11A)에 대한 대답에서 ‘esta pluma’는 구정보로 생략되어야 하고 ‘en Madrid’는 신정보이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대화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⁷⁾

(12) A: ¿Nació Juan en 1960?

B: a. Sí, en 1960.

b. Sí, exactamente entonces.

c. No, en 1961.

(12A)는 ‘후안이 태어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것이 1960년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 즉 구정보는 ‘Nació Juan’이며, 신정보는 ‘en 1960’이 된다. 따라서 신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답이 자연스럽다. (12Ba)에서

7) cf. Kuno(1972, 1975, 1987)와 Bosque(1984)를 참조하시오.

처럼 년도를 대답하거나 (12Bb)에서처럼 그에 상응하는 대체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12Bc)에서처럼 년도를 수정하여 대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정보인 ‘후안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반복하거나 그에 대체하는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계속해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 A: ¿Era Juan todavía un bebé en 1960?

B: a. #Sí, en 1960.

b. #Sí, exactamente entonces.

c. #No, en 1961.

d. Sí, exactamente eso.

(13A)는 ‘1960년에 후안이 아기였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다. 즉 구정보는 ‘en 1960’이고, 신정보는 ‘era Juan todavía un bebé’가 된다. 따라서 대답에서 구정보인 ‘en 1960’이나(cf. (13Ba)) 그 대체 표현(cf. (13Bb))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년도를 수정하여 대답하는 표현(cf. (13Bc))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반면, 후안이 아기였는지에 대한 대체 표현(cf. (13Bd))은 신정보를 대체하므로 대답으로 자연스럽다.

요약하면 이미 담화에 나타난 구정보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생략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즉 생략과 관련해서 구정보 요소는 생략되지만, 새로운 정보는 생략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분석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점이 있다. 질문과 대답의 구문에서 어떤 요소가 어떤 상황에서 구정보와 신정보로 기능하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명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청자가 아는 정보이며 어느 부분이 새로운 정보인가를 체계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선행 문맥에 나왔던 잉여적인 구정보 요소는 생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정보 요소는 항상 생략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잉여적일 것 같은 구정보라 하더라도 생략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반복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략되는 경우는 언급하였지만 반복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와 그 역할에 대

한 설명이 전혀 없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정보 구조에 의거하여 질문-대답 구문에서 생략과 반복을 분석함으로써, 두 현상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정보 구조적 동기에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며 이는 담화의 응집성을 고려한 현상임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IV. 정보부 이론에 따른 생략

1. 정보부 이론의 기본 개념

Vallduví(1990)와 Vallduví & Engdahl(1996)이 제안한 정보부(informational component) 이론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언어에는 문장의 의미 내용(진리조건적 의미)을 바꾸지 않으면서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문법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단들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화자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바탕)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초점)를 덧붙이는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표시해 준다.⁸⁾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아무렇게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청자가 알고 있는 정도와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해 일정한 통사구조를 가진 문장을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 재구조화 하게 된다.⁹⁾ 그리고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명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인가의 여부는 화자가 앞의 문맥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8) 즉, 언어에는 통사구조, 의미구조 외에 정보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구조란 화자가 자신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의 지식 저장소(knowledge store)에 덧붙이기 위해 선택하는 문장의 구조를 말한다.

9) 이러한 정보 구조화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자의 의식 상태이다(cf. Chafe, 1976).

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보를 일정한 정보구조의 틀에 배열한다.

정보부 이론에 의하면, 문장의 정보구조는 크게 바탕(ground)과 초점(focus)으로 이루어진다. 바탕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놓이는 곳으로,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로 구분된다. 초점은 청자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담는 곳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존하여 Vallduví(1990)는 다음과 같은 계층적인 분절(articulation)을 제안하고 있다:¹⁰⁾

- (14) 문장(S) = {바탕(Ground), 초점(Focus)}
 바탕(Ground) = {연결부(Link), 꼬리부(Tail)}

이 구조 내에서 초점은 바탕에 덧붙이는 새로운 정보로서 발화 시에 청자의 지식 저장소에 유일하게 기여하는 제보적인 부분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5) a. El gato se comió [_F un ratón].
 b. El gato [_F se comió un ratón].

(15a)는 un ratón이 초점이고 (15b)는 se comió un ratón이 초점이다. (15)의 상이한 정보구조의 타당성은 앞의 문맥에 따라 (15) 문장들 중 하나만 적절한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예를 들어 (15)의 문장들은 각각 다음 (16)에 상응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 (16) a. ¿Qué se comió el gato?
 b. ¿Qué hizo el gato?

(15a)는 (16a)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하지만 (16b)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적절하다. (15b)는 (16b)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만 적절하다. 다시

10) 이러한 구조를 Vallduví는 '삼항 계층 분절'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초점-바탕 구조'와 '화제-논평 분절'이 각각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화제와 초점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것이다.

말하면, (15a)를 말하는 화자는 (16a)의 질문을 근거로 청자가 이미 이야기의 내용이 ‘고양이가 뭔가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바탕으로 놓고, 뭔가에 해당하는 *un ratón*을 초점 위치에 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5b)를 말하는 화자는 (16b)의 질문을 근거로 청자가 이야기의 내용이 ‘고양이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el gato*를 바탕으로 놓고, *se comió un ratón*을 초점 위치에 둔 것이다. 이와 같이 (15)의 각각의 정보구조는 화자가 질문 (16)의 문맥을 근거로 하여 무엇이 청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그 부분을 초점 위치에 놓음으로써 만들어진다.

바탕은 초점과 상보적인 짝을 이루며 화자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지식이 놓이는 부분이다. 연결부는 초점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저장할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지의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7) A: ¿Qué ocurrió con el libro?

B: [_L El libro]_i [_F lo compró Juan.]

연결부는 연결부가 지정하는 위치로 가서 그곳에 초점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저장하라는 두 가지 지시를 담고 있다.¹¹⁾ 예를 들어, (17B)의 문장은 ‘el libro의 위치로 가라’ 그리고 ‘el libro의 항목 내에 lo compró Juan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꼬리부는 바탕에서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문장 내에서 초점도 아니고 연결부도 아닌 부분이 꼬리부라고 할 수 있다.

(18) a. [_L Juan] [_F le golpeó al perro].

b. [_L Juan] [_F le golpeó] [_T al perro.]

위의 두 문장의 공통점은 Juan이라는 연결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18a)는 *le golpeó al perro*라는 동사구 전체가 초점인 반면에, (18b)는 *le golpeó*만 초점이고 *al perro*는 꼬리부에 속한다는 것이다.

11) 연결부인 ‘el libro’는 Jackendoff(1972)가 정의한 B-강세를 받는다. B-강세는 저음조 뒤에 고음조가 오는 L+H* 패턴의 강세이다.

(18)은 각각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 (19) a. ¿Qué pasó con Juan? ¿Qué hizo (él)?
b. ¿Qué pasó con Juan? ¿Qué le hizo al perro?

꼬리부의 역할은 연결부와 함께 바탕을 형성하고, 이 바탕이 미지항을 가진 명제를 만들어서 강조 또는 대조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8a)는 바탕에 Juan만 있으므로 ‘Juan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만을 담고 있는 반면에, (18b)는 Juan과 al perro가 바탕을 형성하여 ‘Juan이 al perro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전제를 담는다. 이와 같은 전제는 물론 (19b)의 문맥에 근거하여 질문자가 ‘Juan이 al perro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꼬리부가 가지는 지시적 의미는 ‘미지항을 가진 명제’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핵심부의 새로운 정보로 대체시키라는 것이다. 따라서 (18b)는 Juan이라는 위치로 가라. 그리고 Juan 항목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Juan이 al perro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명제 중에서 ‘뭔가 했다’라는 부분을 le golpeó로 바꾸어라는 지시를 담는다. 연결부는 초점을 단순히 첨가시키라는 지시를 가지는 반면에 꼬리부는 바탕의 명제 중의 미지항을 초점의 내용으로 대체시키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보부 이론의 구성 요소 이외에 대조적 연결부(contrastive link)와 대조적 핵심부(contrastive focus)를 정보 구조의 구성 요소로 첨가하고,¹²⁾ 각각의 요소가 담당하는 정보기능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담화 상에서 각 요소들의 정보기능에 따라 생략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어 나타나는지 보자.

2. 정보부 이론에 근거한 생략의 양상

(1) 초점

12) Vallduvi(1990)와 Vallduvi & Engdahl(1996)에서는 대조적 연결부와 대조적 초점을 연결부와 초점에서 유도된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따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cf. 김미경(1999).

바탕에는 청자가 이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만 올 수 있는 반면, 초점에는 청자가 모르는 사실이나, 아직 확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올 수 있다. 초점에 놓이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정보는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신정보이다.

(20) A: [F ¿Qué ocurrió?]

B: [F El gato se comió un ratón.]

(21) A: [F ¿Qué hizo el gato?]

B: [F Se comió un ratón.]

(22) A: [F ¿Qué se comió el gato?]

B: [F Un ratón.]

(cf. Zubizarreta, 1999, 4224)

(20A)의 질문은 대화의 시작점에서 처음 발화되는 문장으로, 문장 전체가 초점을 구성한다. (20B)의 대답은 (20A)의 질문에 대하여 문장 전체가 질문자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므로 초점을 구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21)과 (22) 같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도 초점에 놓이게 되는 신정보이다. 초점은 담화 상황에서 전제되지 않은 부분이다. 즉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청자에게 알려야 할 새로운 정보를 담는 곳으로 생략이 불가능한 요소이다.

다음의 예문은 질문에서 초점 요소였던 정보가 다음 문맥, 즉 대답에서 다시 그대로 초점으로 반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3) A: [F ¿Quién regaló las flores; a Isabel_j?]

B: a. [F Manolo.]

b. [F Se_j las_i regaló Manolo.]

c. #[F Manolo regaló las flores; a Isabel_j.]

(23A)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3Bc)는 (23Ba)와 (23Bb)에 비하면 매

우 어색한 대답이 된다. (23A)의 질문에서 las flores와 a Isabel은 대화의 처음에 등장하면서 신정보 즉 초점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대답의 시점에서 이들은 더 이상 신정보일 수 없다. 즉, 이미 신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정보들을 신정보인 ‘Manolo (regaló)’와 섞어서 다시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잉여적인 정보를 반복해서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청자와 화자가 모두 과외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정보와 구정보를 섞음으로써 청자가 두 정보를 구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정보만으로 이루어진 (23Ba)가 신정보와 구정보가 섞여있는 (23Bc)보다 훨씬 간소화된 대답이며, 질문자는 이 대답만으로도 필요한 신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¹³⁾ 또는 (23Bb)와 같이 대명사로 대체된 대답도 자연스럽다. 정보 구조적으로 잉여적인 구성소들은 생략되거나, 대명사라는 형태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잉여성을 제거하고 있다.¹⁴⁾ 결국 스페인어에서 잉여적인 정보를 반복하는 것은

13) (23)의 대답에서 ‘Manolo’ 만의 대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regaló’라는 동사가 생략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동사는 그 어미가 질문에서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23Bb)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여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략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불필요하고 바로 복원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14) (23Bb)에서처럼 선행 문맥에서 예측 가능한 정보는 대명사 등의 다른 어구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예측할 수 없는 정보는 생략되거나 다른 어구로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현상은 어느 언어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단, 각 언어가 가지는 언어 구조적 특성에 따라 그 잉여성을 줄이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 (i) A: 존은 메리를 만났다.
B: 어디서 만났니?
- (ii) A: John met Mary.
B: Where did he meet her?
- (iii) A: Juan vio a María.
B: ¿Dónde la vio?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어에서는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잉여적인 정보의 반복을 피하고 생략이라는 방법으로 간소화된 구조를 구성한다. 논항 생략이 가능한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라는 형태론적 방법보다는 생략이라는 통사적 방법을 이용하여 잉여성을 줄이고 있다. 영어에서는 정보 전달의 잉여성을 줄이기 위하여 대명사라는 형태론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영어는 언어 구조적 특성상 논항의 생략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불가능한 대신에, 대명사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스페인어에서 주어는 생략 가능하지만, 목적어는 대명사로 대체된다.

담화 상으로 어색하며 대명사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생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략 현상은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잉여적인 정보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간소화된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담화 응집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2) 연결부

바탕의 한 요소로 종래의 주제(topic)와 같은 부분이다. 연결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관심이 연결부로 실현된 요소에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신정보가 이것에 관한 것임을 알림으로써, 청자의 관심을 연결부의 요소로 이끌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24) A: [_F ¿Qué ha tirado Juan?]

B: a. [_L Ø_i] [_F h_i ha tirado la piedra.]

b. [_L Juan_i] [_F h_i ha tirado la piedra.]

(24Ba)와 (24Bb)를 비교해 보면, (24Ba)의 대답은 응답자가 질문자에게 단순히 ‘ha tirado la piedra’라는 신정보만 알려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반면에, (24Bb)의 대답은 연결부-초점의 정보구조를 가진 문장으로 연결부는 이 문장이 전하는 신정보가 Juan에 관한 것이니, Juan이라는 항목으로 관심을 돌려, 그곳에 신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라는 지시적 의미를 전한다. 물론, 이 대답에서 신정보는 ‘ha tirado la piedra’이다.

그러나 다음의 대화를 비교해 보자:

(25) A: [_L Juan_i] [_F ¿qué ha tirado h_i?]

B: a. [_L Ø_i] [_F h_i ha tirado la piedra.]

b. #[_L Juan_i] [_F h_i ha tirado la piedra.]

(25A)는 연결부-초점 구조의 질문이다. 즉, (25A)의 질문자는 Juan을 연결부로 지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이 Juan에 와 있음을 알리고, 상대의 관심을 Juan으로 이끌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25Ba)와 (25Bb)를 비교해 볼 때, Juan이 반복된 (25Bb)는 (25Ba)에 비하여 어색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25A)에서 질문자가 Juan을 연결부로 지정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Juan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응답자가 Juan이라는 연결부를 반복함으로써 질문자에게 다시 Juan이라는 항목에 관심을 모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잉여적이며,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이미 Juan에 관심을 모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면, 곧바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결부는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런 대답이 된다. 결국 스페인어에서는 선행 질문에 연결부로 나왔던 주어는 대답에서 다시 연결부로 반복하지 않고 생략되어야 한다.¹⁵⁾

(3) 꼬리부

전제부의 일부로 연결부와 마찬가지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꼬리부의 역할은 대조적 연결부나 대조적 초점이 문장 내에 있을 때, 전제 명제를 구성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26) [F ¿Quién ha tirado la piedra?]

(27) A: [T La piedra_i], [CF ¿quién_j] [T h_j la_i ha tirado h_i?]

B: a. [T Ø_i la_i ha tirado h_i] [CF Juan_j.]

b. #[T La piedra_i la_i ha tirado h_i] [CF Juan_j.]

(26)의 질문은 아무런 전제 없이 단순히 ‘누가 돌을 던졌는지’를 묻고 있는 반면, (27A)는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는 전제 하에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다. (27A)의 질문은 *quién*에 강한 A-강세¹⁶⁾

15) 스페인어에서 같은 구정보 주어(주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화자는 그것을 표층에 표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즉 주어가 바뀐다거나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때에만 표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16) Jackendoff(1972)는 담화적 기능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강세를 구분하고 있다. A-강세는 고음조를 띤 강세로, 영어에서 신정보나 대조적 강조의 신정보에 첨가되는 강세이고, B-강세는 저음조 뒤에 고음조가 뒤따르는 강세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주제에 첨가된다.

가 주어지면서 꼬리부-대조적 초점의 구조를 갖는다. 질문자는 *la piedra*를 꼬리부로 둠으로써,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니?(Juan이니 María니?)’라고 대조적 강조의 의미를 실어서 질문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7Ba)와 (27Bb)를 비교하면, 동일한 정보 기능을 가지고 반복되는 ‘*la piedra*’를 생략한 (27Ba)가 훨씬 자연스럽다. 질문자는 자신이 이미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는 전제를 질문에서 밝혔는데, 응답자가 *la piedra*를 다시 꼬리부로 실현시킴으로써 똑같은 전제를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잉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4) 대조적 초점과 대조적 연결부

대조적 초점과 대조적 연결부는 초점과 연결부와는 달리 일정한 전제 명제를 가지고, 강조 또는 대조의 의미를 첨가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의 질문과 대답을 보자:

(28) A: [_F ¿Quién hizo la paella, Alfonso_i o Carmen?]

B: a. [_T La hizo] [_{CF} Alfonso_i.]

b. #[_T La hizo] [_{CF} Ø_i.]

(28A)의 물음에 (28Bb)로 응답한다면 매우 어색한 담화가 된다. (28B)의 응답 발화에서 주어 부분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강세가 수반되는 데서 필수적 정보임을 알 수 있다. (28A)의 의문문은 소위 선택 의문문(alternative interrogatives)인데, 선택 의문문에 의한 질문은 해당 의문문의 명제 내용과 가능 응답으로 이루어진 쌍(pairs)이 이접된 구조를 전제한다. 위에서 화자 A는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paella*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Alfonso인가/Carmen인가)는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질문에 응답을 하는 B의 입장에서, A가 ‘*paella*를 만든 사람은 Alfonso이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답의 시점에서 질문자가 아직 그 값을 결정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 그 값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신정보이며 따라서 생략될 수 없다.¹⁷⁾

만일 그것이 생략되면 응답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고 담화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원하는 정보가 생략된 (28Bb)는 매우 어색한 대답이 된다. 정보 구조화 과정에서 신정보와 구정보의 구분은 앞의 문맥에서 나왔던 정보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발화의 시점에서 청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예문을 더 보도록 하자:

(29) A: [_F ¿Entraste tú o entró él?]

B: a. [_T Entró] [_{CF} él.]

b. #[_T Entró] [_{CF} Ø_i.]

(29A)의 질문은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전제 하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tú 인지 아니면 él’ 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화자 A의 발화 내용으로 보아 화자 B는 A의 의식 속에 이미 tú와 él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자는 tú와 él에 대해 이미 인식은 하고 있으나 둘 중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신정보가 생략된 (29Bb)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즉, (29Ba)에서와 같이 él이 어휘적으로 나타나 대조적 핵심부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질문자가 아직 값을 결정하지 못한 정보에 대하여 그 값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 즉, 대조적 초점 정보는 생략될 수 없다. 스페인어에서는 동사에 주어가 표시되어 있어 인칭 대명사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어가 생략되지 못하고 어휘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야 한다.¹⁸⁾

17) ‘Alfonso’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는 의식하고 있으므로 구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자는 Alfonso와 Carmen에 대해 이미 인식은 하고 있으나 둘 중 누가 paella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정보에 해당된다고 본다. II장에서 제시되었던 예문 (2)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i) = (2) A: ¿A dónde fueron Juan y María?

B: a. Juan fue al parque y María, al zoo.

b. *(Juan) fue al parque y *(María), al zoo.

계속해서 대조적 연결부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자:

(30) A: [F ¿Quién ha tirado la piedra y el libro?]

B: [CL La piedra_i] [T la_i ha tirado h_i] [F Juan.]

(30B)에서 *la piedra*가 B-강세를 받으며, 대조적 연결부로 실현되었다. 이 문장은 ‘*el libro*에 관해서는 모르겠지만 *la piedra*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Juan이 던졌다’는 대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대조적 연결부의 기능은 연결부로 가능한 두 개 이상의 대상들 중에서 하나를 연결부로 지정함으로써, 이것을 나머지와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30B)의 응답자는 연결부로 가능한 *la piedra*와 *el libro* 중에서 *la piedra*를 연결부로 지정함으로써, 이것을 *el libro*와 대조시켰다. 대조적 연결부는 항상 대조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대조적 초점과 마찬가지로 전제명제를 가지고 있다¹⁹⁾. 이 예문에서 *la piedra*가

18) 스페인어에서 인칭 대명사가 주어일 때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략이 명령문에서는 선택적이지 않다. 스페인어의 2인칭 대명사 *tú*와 *vosotros*는 명백한 형태론적 표지를 가지므로, 명령문에서 음성학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ia)와 (iia)의 문장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문장의 주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와 (iib) 같이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i) a. Llama.

b. Llama tú.

(ii) a. Pedídselo.

b. Pedídselo vosotros.

(Hernanz y Brucart, 1987:76)

즉, 인칭 대명사는 명령받는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명령문의 경우인 대조적인 상황에서는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i)과 (ii)의 문장들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어느 한 문장만 자연스럽고, 다른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된다.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생략된 *tú*와 생략되지 않은 *tú*는 정보 기능이 다르다. (ia)에서는 Llama라는 어미에 의해 회복이 가능한 *tú*가 신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생략된 것이고, (ib)에서는 *tú*가 대조적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는 신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ii)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예들은 문맥에 의존하여 그 내용의 회복이 가능한 정보라도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 경우와 생략될 수 없는 경우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의 생략 여부는 문맥에서 담당하는 정보 기능과 관계된다.

19) 대조적 초점과는 달리 그 자체가 전제 명제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된다. 대조적 연결부는 뒤따르는 신정보를 대조적 연결부로 실현된 요소에 저장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 신정보는 다른 요소에 저장할 수 없다는 제약을 함으로써 대조의 의미를 전달한다.

대조라는 정보 기능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생략된다면 담화가 매우 어색해진다.

다음의 예는 대조적 연결부가 잉여적인 정보일 경우에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31) A: María ha tirado el libro.

B: [CL La piedra_i], [F ¿quién] [T la_i ha tirado h_i?]

C: a. [CL Ø_i] [T la_i ha tirado h_i] [F Juan.]

b. #[CL La piedra_i] [T la_i tirado h_i] [F Juan.]

La piedra에 강한 B-강세를 둔 (31B)의 질문에서, 질문자는 이미 la piedra를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는 ‘María가 책을 던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질문자와 응답자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la piedra와 el libro를 대조하면서 ‘돌은 누가 던졌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대답의 시점에서 la piedra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질문자에게 똑같은 전제와 대조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잉여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la piedra를 생략한 (31Ca)의 대답이 간단한 구조이며, 질문자는 이 대답 만으로도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생략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V. 결론

일상 대화에서 생략이나 반복 표현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대화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현상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구정보와 신정보 개념만으로는 생략과 반복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llduví(1990)의 정보부 이론에 기초하여, 질문과 대답의 구문에서 생략과 반복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담화 구성소들을 정보 구조

단위로 재구성하여 어떤 정보 단위의 생략과 반복 및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정보 구조화 과정에서 신정보와 구정보의 구분은 선행 문맥에서 나왔던 정보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시점에서 청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질문과 대답의 구문에서 생략과 반복이 일어나는 것은 담화간의 응집성을 최대로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화를 하는 동안 화자와 청자는 여러 담화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 가는데, 특히 정보의 흐름이나 대화의 진행 흐름 등에 유의하면서 적절한 생략과 반복 발화들을 산출하고 있었다. 두 현상이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단순한 문체적 변형의 문제라거나 규칙성을 찾기 힘든 선택적이고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 기능에 의해 철저히 제약된 현상임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생략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정보 단위를 빼버림으로써 문장의 잉여성을 낮추면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반면, 반복은 어떤 정보 단위를 생략하지 않고 반복 사용하여 문장의 담화적 기능을 명확하게 제공하면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문(1998), 「맥락과 용인가능성」, 『현대문법연구』, 13, 157-182.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김미경(1999), 「정보구조화 관점에서 본 생략의 의미와 조건」, 『담화와 인지』, 6, 61-88.
- 김선미(2005), 『언어와 언어학이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상철·최인철(2006), 『영한대조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이만기(2006), 『스페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범 외3인(2002), 『화용론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 -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국어연구』, 32, 61-99.
- 정무주(1998), 「인칭대명사와 담화역할」, 『현대문법연구』, 12, 169-186.
- 정희자(1996), 「영어 담화에서 담화전략과 어순변화」, 『담화와 인지』, 2, 21-45.
- _____(2002), 『담화와 추론』, 서울, 한국문화사.
- 홍병호(2006), 『상황과 표현』, 용인, 경남대학교 출판부.
- Bosque, I.(1980). "Retrospective Imperatives". *Linguistic Inquiry*, 11, 415-419.
- Büring, D.(1997),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 The 59th Street Bridge Acc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afe, W.(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133.
- _____(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 and point of view",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25-56.
- Contreras, H.(1976), "Theme and Rheme in Spanish Syntax", in M. Lujan & F. Hensey (eds.),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330-342.
- _____(1978),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 Gundel, J. K.(1996), "Pragmatic function and linguistic form",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1, 5-28.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ernanz, M. L. y Brucart, J. M.(1987), *La Sintaxis*,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Jiménez Juliá, T.(2005), "Estructura sintáctica y constituyentes internos en español", *Estudios Hispánicos*, 45-60.
- Kuno, S.(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_____(1975), "Three perspectives in the functional approach to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11, 276-336.
- _____(1987), *Functional Synta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chant, J.(2001), *The Syntax of Si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ce, E. F.(1979), "On the Given/New Distinction", *Papers from the Regional Meetings, Chicago Linguistic Society*, 15, 267-278.
- _____(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223-255.
- Tomlin, Russell S.(1987), *Coherence and Grounding in Discours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Vallduví, E.(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1995), "Structural property of information packaging in Catalan", in Kiss, K.(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152.
- Vallduví, E. & Engdahl, E.(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3, 459-519.
- Zubizarreta, M. L.(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9), "Las funciones informativas: tema y foco", en I. Bosque y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4215-4244.

양승관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한양아파트 7-206

E-mail: skygap@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11일